



광주 서구, 민·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나서

광주 서구는 지난 18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19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서부경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 절차를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자녀 징계권'이 폐지된 점을 홍보하며 체벌 없는 양육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서구는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민·관·경(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경찰서) 협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각종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복지시설 인권 점검, 재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건강관리사 실습관 개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실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실습관을 개설했다. (사진)

19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최근 노인요양전문 민간기업인 케어링(주)과 협력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실습관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실습관은 약 60㎡ 규모에 목욕·수유용품 및 기기, 신생아 모형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60여종의 기기와 물품을 구비해,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특히 최신 전자기구나 육아용품을 원활하게 다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건강관리사들의 업무 숙련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서비스 관련기관과 관리사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모두에 요긴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광주지역에는 17개의 관련 서비스기관이 관리사 파견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경찰, 강력범죄 현장대응훈련 실시

“구민 안전에 최선 다할 것”

광주 북부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흥기 소지자 체포·인치’ 현장대응훈련(FTX)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

과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관내 8개 지구대·파출소와 형사강력팀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다양화되는 범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북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은행, 창립 기념 역대 행장 초청 간담회

광주은행은 19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6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자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송종욱(제13대) 은행장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의 지난 56년을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역대 광주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객에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광주은행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과 지역민들에 사랑받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사회보험 협의체’ 개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 광산), 국민연금공단(북광주, 동광주, 나주), 국민건강보험공단(서부)지사와 합동으로 19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개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를 결의하고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자)이며 해당 근로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해당 월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나다운 기자**

해양에너지, 탄소중립 실천 ‘무등산 쓰담산행’

해양에너지는 지난 18일 광주시의 무등산국립공원 환경정화 및 환경인식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무등산 정화활동 ‘2024 무등산 쓰담산행’에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광주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쓰담산행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깅 및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우리지역 기업 및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ESG 실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에너지 고객센터 47개소,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전문문화관부터 증심사까지 산행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ESG경영본부장은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무등산 정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우리지역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회사의 ESG활동과 더불어 광주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8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이며, ESG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함평군 월야면 자치위, 샤인머스켓 기부

함평군 월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샤인머스켓 100박스(400만원 상당)를 기부하며 ‘은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기부된 샤인머스켓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수확에 참여해 정성껏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복 월야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지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흥군, ‘헌혈문화 확산공로’ 적십자사 표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역사회 내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고흥군에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고흥군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2회 이상 헌혈버스를 통해 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하절기 및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혈액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적극적인 헌혈 홍보와 참여로 생명을 살리는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준명 기자**

트와이스 日 유닛 미사모, 내년 1월15일 ‘도쿄돔’ 입성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사나·모모로 이뤄진 일본 유닛 ‘미사모(MISAMO·사진)’가 현지 데뷔 1년4개월 만에 도쿄돔에 입성한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사모는 내년 1월15~16일 이틀간 도쿄 돔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7월 미사모 미니 1집 ‘마스터피스(Masterpiece)’를 발매한 이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사모는 지난 2~3일과 16~17일 각각 일본 사이타마 벤투라 돔과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미사모는 도쿄돔까지 포함해 현지 3개 도시, 6회 돔 공연을 성사시키게 됐다.

미사모는 최근 교세라 돔 공연에서 지난 6일 정식 발매한 미사모 미니 2집 ‘오토 큐티르’의 수록곡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은 멤버들의 출신 지역인 간사이에서 개최된 만큼 사투리 토



크와 앨범 비하인드 등을 이야기하며 관중과 소통했다.

한편, 솔로, 유닛, 단체로 맹활약 중인 트와이스는 오는 12월6일 오후 2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 새 미니 앨범 ‘스트라티지(STRATEGY)’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스트라티지’엔 미국 래퍼 메건 디 스탬리언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트와이스는 오는 21일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아마존 뮤직 라이브(Amazon Music Live)’에 출연한다. **곽지혜 기자**